

## News

### 새해 첫 기준금리 수위 가능할 이정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12월 23일 금통위의 25차 의사록 공개... 오는 14일 예정된 2022년 새해 첫 기준금리 정하는데 이정표될 전망  
가계대출, 물가 안정, 시중 유동성 등에 대한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 운영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

### 토뱅크 인터넷은행 대출 전쟁...한도 늘리고 포트폴리오 확대

뉴스1

토스뱅크, 연초부터 공격적인 대출영업 재개... 인터넷전문은행들, 대출 한도 늘리거나 여신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고객 잡기 경쟁 치열  
규제 시행 이전에 미리 대출 받으려는 가수요가 토스뱅크에 몰려... 케이뱅크, 신용대출 한도를 2억 5,000만원까지 늘리며 맞불... 시중은행은 적극적 대출영업이 어렵다는 반응

### 고정금리 적격대출 품귀... "금리 더 오른다"

연합인포맥스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 적격대출에 대한 수요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상황...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3곳만 현재 취급 중  
주공금, 올 1분기 적격대출 공급 규모 크게 줄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 1분기 적격대출 취급하지 않아... 은행권, 일정 기간 대출계수에 잡히는 것이 부담이라는 입장

###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회동... "가계부채 관리 등 공조"

데일리안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신년 회동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체계 지속 밝혀...  
가계부채 위험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 이어나갈 것... 더불어 업권 여건 변화 등 혁신 기회도 적극 활용할 것 언급

### 속속 열리는 보험사 대출문... DB손보, 신용대출 재개

머니S

DB손해보험, 신용대출 재개... 삼성화재에 이어 두 번째... 지난 2일 대출 목표를 최종 확정  
금융당국, 올해 보험사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4.1%로 제시... 총량관리에 여력 생기기 보험사들의 대출 재개... KB손보, 주택소유자 대상으로 대출 재개 예정

### 보험사 신용대출 평균금리 10% 이상 상품 등장... 2019년 이후 2년 만

아주경제

보험사들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금리 2년 만에 10% 육박... 12월 말 기준 무증빙형 신용대출 평균금리 전년대비 0.43%p 상승한 10.18% 기록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영향주었다는 일각 견해도 존재... 신용대출 중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증가

### 중형증권사 저축은행 인수바람... '알짜 자회사로 성장' 과제로

뉴데일리

SK증권, MS저축은행 지분취득 완료 후 계열사 편입 완료... KTB투자증권,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60.19%를 2,003억원에 사들여...  
중형 증권사 중심으로 저축은행 인수 바람... 스타록을 연계해 여신 기능 확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매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전략

### "1조 클럽은 기본"...글로벌 IB 향해 뛰는 대형 증권사들

아시아투데이

증권사들, 올해 IB부문에 힘 실을 것... 증시 변동성 확대에 위탁매매 부문 급격한 약세가 예상되기 때문... 인수·부동산 금융 등이 다시 활기 띠는 것도 경쟁 부추겨...  
대형 증권사들, IB강화 조직개편 수행... 최근 ESG가 퀘를 같이 하는 점도 강화 이유로 꼽혀... 증권업계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